

‘도통’ 개념의 출현과 도학적 도통 관념의 함의

임 명 희

(서울대학교 윤리교육학과)

1. 문제제기

도통(道統) 관념은 ‘학통’(學統), ‘정통’(政統) (또는 ‘치統’) 등의 관념들과 더불어 중국 철학사 및 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개념어의 다양한 출처 및 그 함의를 밝혀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통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주희 또는 주희 이후 그 문인들에 의해 확립된 도통 관념의 고정된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이유는 물론 도통 개념이 주희 및 그 문인에 이르러 비교적 빈번히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철학적 함의 또한 점차 구체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도통 관념에 관한 선행 연구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도통 계보 안에 포함된 특정 인물들의 철학 이론을 분석하고 그들 간의 사상적 연관성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제어: 도통, 도학, 명도, 행도, 도통계보
道統, 道學, 明道, 行道, 道統譜系

접근 방식은 도통 관념 자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고보다 이미 전제된 도통 계보라는 형식 안에 포함된 특정 이론 내지 철학적 논의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통 학설에 관한 이론적 탐구의 성격을 띤다. 주지하듯 그 안에는 리기(理氣), 태극동정(太極動靜), 천리인욕(天理人欲), 도심인심(道心人心) 등의 주제가 포함되며 도통 관념 형성을 둘러싼 역사적, 사상사적 의의가 다소 희석된 순수철학적 담론이 주를 이룬다.

필자는 자료의 수집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도통 학설에 관한 위와 같은 논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도통 개념의 출현 및 도통 관념의 형성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미진하다는 점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주희 이전 도통 개념의 용례 및 주희가 사용하는 도통 관념의 형성 과정을 밝히기 위한 문헌학적 고증 작업이 불과 최근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이런 류의 작업이 도통 관념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 보다 큰 흥미가 있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 글에서 필자는 도학적 도통 관념의 함의를 밝히기 위해 주희 이전에 사용된 도통 개념의 용례를 제공하고 그 가운데 도학적 도통 관념으로 사용된 도통 개념의 최초 용례를 고증하고자 한다. 또한 도학적 도통 관념의 완성으로 평가받는 주희 『중용장구서』에 나온 도통 개념의 의미를 고찰하는 동시에 동시대인들의 용법과 비교하고, 이정 및 그 문인들이 건립한 도학적 도통 관념의 함의를 밝혀주기 위한 문헌상의 논거들을 제공하여 주희가 계승, 발전시킨 도학적 도통 관념의 사상적 전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증하고자 한다. 도통 관념의 형성에 관한 이와 같은 문헌학적, 사상사적 고찰은 주로 도통에 관한 이론 분석에 치중하였던 기존 연구 성과들과 더불어 송대 도통 사상의 성격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주희 이전 ‘도통’(道統) 개념의 용례

도통 개념 출현에 관한 기존 학계의 의견은 주희가 도통 개념의 창시자라는 데 모아진다.¹⁾ 대표적으로 고 진영첩 교수의 주장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 설은 여전히 대륙 및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²⁾ 하지만 비교적 최근(2010년) 독일 학자인 크리스티안 조펠(Christian Soffel) 교수는 다음과 같은 반례를 들어 주희를 도통 개념의 창시자라고 여겨온 기존의 견해를 수정했다.³⁾ 우선 조펠 교수가 제공한 네 가지 원문을 시대순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문헌은 당대(唐代) 개창이라는 자의 묘지명 서문이다.

(盖暢) 歸家不仕, 以文史自娛, 著『道統』十卷, 誠千古之名作, 一代之良才.(개창은 집에 기거하며 벼슬하지 않고 글을 짓고 기록하는 일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아 『도통』 십권을 저술하였으니 진실로 천고의 명작이요 시대의 인재이다.)⁴⁾

- 1) 일반적으로 유가적 도통 관념의 연원에 관한 논의는 한유 또는 양응, 맹자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논의에서 ‘도통’이라는 개념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주희가 이 특수한 개념의 창시자이며 보급자라는 데 동의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 2) 陳榮捷, 『朱學論集』, 18쪽.
- 3) 크리스티안 조펠(Christian Soffel, 중문명은 蘇費翔, 독일 뮌헨대학 교수. 이 논문의 제목은 『朱熹之前的道統論』이며 2010년 북경 청화대 『朱子學國際學術研討會』에서 발표되었다.
- 4) 본 논문의 성격상 해당 문헌상의 근거를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이하 원문을 각주 처리하지 않고 본문에 삽입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大周故處士前兗州曲阜縣令盖府君(盖暢)墓誌銘並序』(698年) 출처는 毛漢光(1984), 『唐代墓誌銘彙編附考』, 台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第13冊, 131-133쪽에 수록. 관련 논의로는 다음 논문을 참고 葉國良(1995), 『唐代墓誌考釋八則』, 『臺大中文學報』, 第7期, 51-76쪽 및 『石學續探』, 臺北大安出版社, 118-122쪽.

이 문헌은 1984년 모한광의 『당대묘지명휘편부고』(唐代墓誌銘彙編附考)에서 이미 제출된 바 있으며 이 문헌 가운데 도통 개념 출현에 관한 학문적 의의는 1995년 대만 학자인 섭국량 교수의 『당대묘지고석팔칙』(唐代墓誌考釋八則)에서 주목된 바 있다. 이 문헌에서 도통 개념은 문집 명으로 쓰였지만, 『도통』이라는 문집 자체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떠한지는 추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도통이라는 개념이 당나라 때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문헌은 송대 이약수(李若水, 1093~1127)라는 자가 작성한 서신이다.

蓋堯、舜、禹、湯、文、武、周公之成烈，載於『書』，詠於『詩』，雜見於傳記，雖豐隆炳耀若日星，然至今光芒不替。(…)天厭喪亂，眷命有德，藝祖以勇智之資、不世出之才，祛迷援溺，整皇綱於既紛，續道統於已絕。(요, 순, 우, 탕, 문, 무, 주공의 업적은 『서』에 기록되어 있고 『시』에서 음영되며 전의 기록에서 보이니, 비록 성대하고 찬란한 것이 마치 해와 별과 같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 빛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망하고 어지러운 것을 싫어하여 유덕한 사람에게 천명을 내리고 선왕께서는 유능하고 보기 드문 인재들로 미혹을 제하고 환란을 구제하여 무너져버린 황권의 기강을 정돈하셨고 단절되버린 도통을 이으셨습니다.)⁵⁾

우선적으로 이 문헌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요, 순, 우, 탕, 문, 무, 주공이라는 도통 계보의 출현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공자와 맹자 등의 이름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주의를 끄는 것은 도통 개념이 ‘황강’(皇綱)이라는 개념과 병렬 출현하고 있다는 점으로, 여기에서 황강은 황극 개념과 유사한 의미로 황실의 기강 또는 황제의 위상 등의 의미로

5) 『上何右丞書』, 『忠愍集』 卷一

쓰인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된 도통 개념은 역대 성왕(聖王)의 승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문헌은 유재소(劉才邵, 1086~1158)라는 자의 상서문이다.

唐虞三代之盛，見於『詩』『書』之所傳，率由此道。其後去聖既遠，無所折衷，異論肆行，而道統益微。……雖堯、舜、禹、湯、文、武汲汲以成帝王之極功，何以過此，豈留意於章句之同異者得以望清塵哉！(당우 삼대의 흥성함은 『시』와 『서』의 전해지는 글에서 보이니 이 도를 따른 것입니다. 후대 성왕들이 죽은 지 오래되자 도에 적합한 바가 없어지고 이단적 의론이 성행하니 도통이 점점 미미해져 갔습니다… 비록 요, 순, 우, 탕, 문, 무가 힘써 이룬 제왕의 지극한 공적이라 할지라도 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장구의 차이에 마음을 쓰는 자가 고매하게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⁶⁾

이 문헌에서 도통 개념은 이단적 의론의 성행(異論肆行)과 대조되어 등장한다. 유재소는 상고(上古) 시대 이후 삼대(三代)의 도가 단절되었음을 지적하는데, 여기에서 도통의 계보는 요, 순, 우, 탕, 문, 무 등의 성왕 계보를 가리킨다. 주목할만 한 것은 앞에 인용한 이약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자와 맹자 등의 이름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재소가 사용하는 도통 개념 역시 성왕의 전승 계보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문헌은 이유겸(李流謙, 1123~1176) 이라는 자의 서신이다.

至於承列聖之道統，振千載之絕學，中和之功，皇極之用，位天地而育

6) 『乞顏聖學下太學劄子』, 『檄溪居士集』 卷八

萬物者，蓋未可以筆舌授而傳聞得也。(열대 성인의 도통을 잇고 천대의 절학을 일으키는 것으로 말하자면 중화의 공적과 황극의 작용이며 천지를 세우고 만물을 기르는 것이니 어찌하여 붓과 혀로 받아 전할 수 있겠습니까?)⁷⁾

위의 인용문은 이유겸이 장준에게 보내는 서신문이다. 장준은 1164년 사망하였으므로 이 서신은 1164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이유겸의 도통 개념 사용은 주희가 도통 개념을 처음 사용하였던 시기(1179년)에 비해 15년 이상을 앞선다. 이유겸이 사용한 도통 개념은 앞서 나열한 두 가지 경우와 비교할 때 보다 ‘이학적’(理學)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유겸은 『중용』의 주요 개념들을 사용하여 도통(道統)의 계승과 절학(絶學)의 흥기를 강조하며, 이러한 전승은 언어적 수단(筆舌)으로 수수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위의 두 인용문과 비교할 때 이유겸의 기록에서는 성왕의 계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이유겸의 이른바 “열대 성인”(列聖)에는 성왕뿐 아니라 공자 역시 포함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유겸의 기록에서 도통 개념이 도의 전승 주체 및 전승 방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펠 교수의 네 가지 반례는 주희가 도통 개념의 창시자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거가 된다. 하지만 도통 개념의 출현에 관한 고찰이 후대 도학자들이 사용하는 도통 관념의 단서를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다. 사실 위의 네 가지 용례 모두 송대 도학가들이 사용하는 도통 개념 용법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보았듯이 당대(唐代) 문헌인 『개창모지명서』는 현존하는 문헌 가운데 도통 개념이 출현하는 가장 초기 문헌에 해당되지만 그 의미는 추론 불가능하며, 나머지 세

7) 『上張和公(張浚)書』, 『澹齋集』 卷十一

문헌의 용법 역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후대 도학가들이 사용하는 도통 관념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이약수와 유재소가 제시하는 도통의 계보는 기본적으로 양웅의 언급에 기초하고 있지만⁸⁾ 공자의 이름은 배제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도통의 계보가 객관적 지위를 가진 제왕(聖王)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도통의 주체가 성인(聖人)이 아닌 성왕(聖王)이라는 사실은 도의 전승 방식에 있어 지위(位)를 가진 성왕의 정치적 업적이 필수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덕성 내지 내성 공부를 통해 도달한 경지를 도통 전승의 보다 필수적인 요건으로 여기는 도학가들의 도통 관념과는 거리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약수와 유재소의 도통 개념이 훗날 치통(治統) 또는 정통(政統)으로 불리는 정치 권력의 계승 계보에 한정되며 이것은 도학가들이 말하는 도통 관념의 의미와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이유겸의 서신에 등장하는 도통 개념 역시 도의 전승 주체 및 전승 방식에 관련된 논의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도통 개념의 도학적 의미를 제공해 주기에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필자는 조펠 교수가 열거한 네 가지 문헌과는 별도로 비도학 진영에서 등장한 도통 개념의 한 가지 용례를 추가로 제시하여 도통 개념의 도학적 정의에 대한 선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필자가 제공할 문헌은 범성대(范成大, 1126~1193)와 효종의 대화문이다. 주필대는 범성대와 효종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孝宗) 嘗諭公：“朕治心養性，以求知道。”公曰：“知道莫如堯、舜、禹、湯、文、武、周、孔，其靜而聖，存心養性是也，動而王，治天下、

8) 『法言學行』：“學之爲王者事其已久矣. 堯、舜、禹、湯、文、武汲汲，仲尼皇皇，其已久矣.” 양웅이 생각하는 도의 전승 계보는 堯, 舜, 禹, 湯, 文, 武, 孔子 임을 알 수 있다.

國家是也。漢、唐之君，功業固有之，道統則無傳焉。”上嘉獎數四。(효종이 공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마음을 다스리고 성을 기름으로써 도에 대해 알기를 구한다”고 하셨다. 공이 답하여, “도를 아는 것은 요, 순, 우, 탕, 문, 무, 주공, 공자를 아는 것만 못합니다. 그 고요함으로 말하면 성스러움이니 마음을 보존하고 성을 기르는 것이 이것이요, 그 움직임으로 말하자면 왕 노릇하는 것이니 천하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당의 군주는 공적은 있었으나 도통에는 오히려 전함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니 왕께서 거듭 장려하셨다.)⁹⁾

주필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문답은 건도 5년(1169)에 발생하였다.¹⁰⁾ 효종이 범성대에게 마음을 다스리고 성을 기르는 공부(治心養性)를 통해 도에 대해 알기 원한다는 심경을 드러내자 범성대는 요, 순, 우, 탕, 문, 무, 주공, 공자의 계보를 들어 이에 응수한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이러한 성인의 업적을 동정(動靜)의 구분으로 설명하는 범성대의 논의 방식이다. 범성대는 정(靜)하면 성인(聖), 동(動)하면 제왕(王)이라는 구분 법으로 내성과 외왕의 업적을 구분한다. 이어서 한당의 군주는 공적만 있을 뿐 도통에는 그 전함을 잃었다고 비판하는데, 다시 말해 한당의 군주가 도통의 계보에 들 수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외왕에 해당되는 업적만 있을 뿐 내성에 해당되는 마음 공부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범성대가 사용하는 도통 개념에서의 핵심이 내성 공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화법은 제왕의 지위(位)보다 제왕의 덕성(德)을 더욱 중시하는 도학가들의 도통 관념과 유사성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말해 위에 나열한 다섯 개의 문헌은 도통 개념이 주희 이전에 이미 등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초창기의 도통 개념은

9) 周必大(1195), 『資政殿大學士贈銀青光祿大夫范公神道碑成大』, 『文忠集』 卷六十一

10) 李峻(2006), 『『中庸章句序』中的“道統”與“道學”』, 『學園』

주로 치통(治統), 정통(政統) 등의 의미와 큰 구별없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범성대가 사용하는 도통 개념의 용법은 현존하는 문헌 가운데 최초로 도학적 의미에서의 도통 관념의 함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말하는 ‘도학적 도통 관념’에 대해서는 주희의 도통 개념 사용을 살펴본 다음 이어서 후술하기로 한다.

3. 주희 도통 개념의 용법

주희가 사용한 도통 개념의 용법을 고찰하기 전에 주희 동시대인들의 용법을 살펴보는 것은 주희 도통 개념 사용의 특이성을 돋보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희에 이르러 완성된 도학적 도통 관념의 함의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 먼저, 장식이 사용한 도통 개념의 용법은 다음과 같다. 장식은 진개에게 보내는 서신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欲請足下本『六經』、『語』、『孟』遺意，將前所舉十四聖人槩爲作傳，繫以**道統**之傳，而以國朝濂溪、河南、橫渠諸先生附焉。洙泗門人至兩漢以下及國朝程門諸賢，凡有見於道，有功於聖門者，各隨所得，表出其人，附置傳末，著成一書。¹¹⁾ (『육경』, 『논어』, 『맹자』의 뜻에 근거하여 전에 언급한 열 네 명의 성인을 전에 수록하여 도통의 전승을 잇고 령계, 이정, 황거 선생을 추가할 것을 청합니다. 洙泗의 문인들로부터 양한 이하 정문 제현들에게 이르기까지 도에 일견이 있고 성문에 공이 있는 자들은 각각 얻은 바에 따라 그 사람을 표창하여 전말에 부록으로 엮어 한 권의 책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장식과 진개의 서신 교환은 장식이 시강에서 물러난 직후에 주로 발생

11) 『張栻全集』卷三十

하였으므로 위의 서신은 건도 7년(1171)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인용문에 보이는 “열 네 명의 성인”(十四聖人)의 구체적인 계보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논어』, 『맹자』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계보 안에 공자(및 공문 제자), 맹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장식은 이 십사성인을 도통의 전승(道統之傳)으로 규명하고 그 뒤에 주돈이, 이정, 장재를 수록할 것과 수사학(洙泗學)의 문인 및 한당에서 정문 제자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성과가 있는 자들을 함께 부록으로 엮어 한 권의 책으로 만들 것을 요청하였다. 장식의 이 주장은 훗날 주희가 편집한 『이락연원록』에서 보이는 협소한 관점과는 달리 상당히 폭넓은 관점을 시사하지만, 그가 주돈이, 이정, 장재를 북송의 대표 학자로 꼽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위의 인용문에서 장식은 도통 개념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가 이 개념을 주희만큼 빈번하고 중요한 의미로 사용한 것 같지는 않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헌은 여조검에 관한 것으로, 여조검의 사후(1181) 그를 추모하는 제문과 애문에서 무려 세 명의 인물들이 도통 개념을 언급하였다.

道統誰傳授，源流易失真，滔滔皆四海，齷齪獨斯人。¹²⁾(도통은 어떻게 전수되는가. 원류는 참됨을 쉽게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오직 이 사람에게 전해졌구나.)

先生之學，**道統**正傳。精粗本末，渾然大全，發明經旨，默契昔賢。¹³⁾(선생님의 학문은 도통의 바른 전승이다. 정밀하고 거칠, 근본과 말단이 혼연히 전체를 이루어 경전의 참뜻을 밝히셨고 옛 현자와 합하셨다.)

12) 『東萊集·附錄』 卷三 『門生朝奉郎權發遣江南東路提點刑獄公事趙煜』

13) 『東萊集·附錄』 卷三 『鄭唐卿等』

道統傳千載，儒風振一時；心誠師孔孟，業廣慕臯夔.¹⁴⁾(도통이 천대에 전하여져서 유풍이 한 시대를 떨쳤다. 마음이 성실함에 공맹을 본받았고 업적이 광대함에 고요과 규를 사모하였다.)

위 인용문의 저자들은 모두 여조검을 도통의 전승자라고 추모했다. 특별히 마지막 인용문의 저자는 여조검이 전승한 도통이 공맹의 학문과 고요, 규의 업적을 모두 망라했음을 지적한다. 주목할 것은 여조검은 사후 도통의 전수자로서 추모되었던 동시에 “도를 밝힌”(明道) 인물로 칭함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왕도부는 여조검을 칭하여 “명도직각대저랑중선생”(明道直閣大著郎中先生)이라 하였고 진위중은 그에게 “동래선생명도직각례부여공”(東萊先生明道直閣禮部呂公)이라는 칭호를 붙였으며 주희 역시 여조검을 일러 “우백공여형명도직각대저랑중”(友伯恭呂兄明道直閣大著郎中)이라고 칭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주희는 아마도 여조검 사망 당시 그를 ‘명도’라 추모하는 주변인들의 견해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조검이 정호의 존호와 같은 ‘명도’로 불려지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그에게 위협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¹⁵⁾

다음으로 주희의 도통 개념 사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존하는 문헌에 근거할 때 주희가 사용한 ‘도통’ 개념은 십여 건으로 추산된다. 그중 세 번은 『중용장구서』에서, 네 번은 주돈이를 추송하는 문장에서, 나머지는 어류와 서신 등 도의 전승을 논하는 구절에서 사용되었다.¹⁶⁾

14) 『東萊集·附錄』卷三『宣教郎新知衢州江山縣主管勸農公事邵浩三相流風遠諸孫氣貌舒有文皆錦繡不琢自璠璣樂育心無類何言意已摠摠衣多戶履四海讀公書』

15) 여조검 사후 여조검을 향한 주희의 견제에 대해서는 호이트탈만(2002), 『주희의 사유세계』를 참조. ‘明道’라는 개념에는 도통의 전승 방식에 관한 당시 도학자들의 특별한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 관련 논의는 필자(2009)의 『도의 전승에 관한 송대 도학자들의 신념과 도통관념』, 『동아연구』 제57집을 참조.

16) 語類은 卷十三、十六에 보이며 서신은 『答陸子靜』(『文集』卷三十六), 『答曾景建』

이 점은 주희가 사용한 도통 개념의 대다수가 『중용장구』의 집필 목적 또는 주돈이 추송 작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중 본 논의 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 예문을 제시하여 주희 도통 개념의 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년도 순서와 관계없이 주돈이의 추송과 관련되어 등장하는 도통 개념의 용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희는 순희 6년(1179) 주돈이에 관한 아래의 문장에서 도통 개념을 최초로 사용했다.

濂溪先生虞部周公，心傳**道統**，爲世先覺。¹⁷⁾ (렴계 선생은 마음으로 도통을 전한 시대의 선각자시다.)

여기에서 주희는 주돈이가 심전(心傳)의 방식으로 도통을 전수한 선각자임을 주장한다. 그 후에도 주희는 주돈이를 추송하기 위한 문장들에서 꾸준히 도통 개념을 사용하였다.

惟先生承天畀，系**道統**，所以建端垂緒，啓佑于我後之人者。¹⁸⁾ (렴계 선생은 하늘이 부여한 것을 계승하고 도통을 이어 단서를 세우고 실마리를 이어 후인들을 일깨우셨다. 1181년)

乃更闢堂東一室，特祀先生，以致區區尊嚴**道統**之意。¹⁹⁾ (벽당 동쪽 방에렴계선생을 특별히 종사하여 전심으로 존엄한 도통의 뜻을 기린다. 1193년)

(『文集』 卷六十一)에서 보인다.

17) 『晦庵先生朱文公文集』 卷九十九 『知南康榜文·又牒』

18) 『晦庵先生朱文公文集』 卷八十八 『書濂溪光風霽月亭』

19) 『晦庵先生朱文公文集』 卷八十 『邵州州學濂溪先生祠記』

恭惟**道統**，遠自羲、軒，集厥大成，允屬元聖。述古垂訓，萬世作程。
 (….) 周程授受，萬理一原，曰邵曰張，爰及司馬，學雖殊轍，道則同歸，
 俾我後人，如夜復旦。²⁰⁾ (도통은 멀리 복희, 황제로부터 시작하여 그 큰 성
 취가 집결되어 큰 성인(공자)에게 속하게 되었다. 옛 것을 조술하고 가르
 침을 세워 만세에 모범을 만드셨다…주선생과 정선생이 서로 주고 받은
 것은 만리의 한 가지 근원이요, 소옹, 장재, 사마광에 이르기까지 그 학문
 이 비록 달라도 도는 하나로 귀결되니 우리 후인들에게는 마치 어두운 밤
 의 광명과 같다. 1194년)

인용한 세 가지 용례 모두 앞의 인용문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특기할 점은 마지막 인용문에서 “주선생과 정선생이 서로 주고 받음”(周
 程授受)를 언급하여 주돈이와 이정 사이의 학문적 승계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²¹⁾

다음으로 『중용장구서』에 보이는 도통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용장구서』에서 도통 개념은 세 번 등장하며 그 용법에 있어 다른 곳
 보다 확고한 도학적 도통 관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中庸何爲而作也？子思子憂**道學**之失其傳而作也。蓋自上古聖神繼天立
 極，而**道統**之傳有自來矣。(….) 夫堯、舜、禹，天下之大聖也。以天下相
 傳，天下之大事也。以天下之大聖，行天下之大事，而其授受之際，丁寧告
 戒，不過如此。則天下之理，豈有以加於此哉？自是以來，聖聖相承：若成
 湯、文、武之爲君，臯陶、伊、傅、周、召之爲臣，既皆以此而接夫**道統**
 之傳，若吾夫子，則雖不得其位，而所以繼往聖、開來學，其功反有賢於

20) 『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八十六 『滄洲精舍告先聖文』

21) “주정수수(周程授受)”에 관해서는 陳來(2004), 『道學宗主·序』; 楊柱才(2004), 『二
 程師事周敦頤考論』(『道學宗主』); 鄧廣銘(1997), 『關於周敦頤的師承和傳授』, 『鄧
 廣銘治史叢稿』; 陳植鏢(1994), 『周程授受辨』, 『文獻』; 土田健次郎(2010), 『道學之
 形成』; 王立新(1999), 『周敦頤思想史地位之確立』, 『朱子學刊』 등을 참조.

堯舜者(중용은 무엇 때문에 지었는가? 자사가 도학이 그 전승을 잃을 것을 염려하여 지었다. 상고성신으로부터 하늘을 이어 극을 세우니 도통의 전승이 이로부터 있어왔다.……요, 순, 우는 천하의 큰 성인이다. 천하를 서로 전하여 천하의 큰 일을 이루셨다. 천하의 큰 성인으로 천하의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수수할 때의 간절히 관계함이 이와 같았을 뿐이다. 천하의 이치가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겠는가? 이로부터 성인과 성인이 서로 계승하여, 탕, 문, 무의 군주와 고요, 이윤, 부열, 주공, 소공의 신하는 모두 이것으로 도통의 전승을 이었다. 공자의 경우 비록 그 지위는 얻지 못하였으나 지나간 성인을 이어 후대 학문을 여셨으니 그 공이 오히려 요순에 버금간다.)

주희의 논점은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다.²²⁾ 첫째, 상고성신이 하늘을 이어 준칙을 세운 이래 ‘도통’의 전승이 있어 왔다. 둘째, 탕, 문, 무의 군주(君)와 고요, 이윤 등의 신하(臣)는 모두 요, 순, 우의 성왕이 세운 도통을 계승하였다. 셋째, 공자는 비록 그 지위(位)는 없었지만 성인을 이어 학문을 열었다. 넷째, 자사는 ‘도학’의 전승을 잃을 것을 염려하여 『중용』을 지었다. 종합하여 볼 때, 주희는 공자가 성왕의 도(聖王之道)를 이어 성인의 학문(聖人之學)을 열었다는 면에서 도통을 계승한 것이라 평가한다.²³⁾

이렇듯 공자가 학문을 개창하는 방식(開來學)으로 선왕의 도통을 계승하였다는 주희의 지적은 그의 도통 관념이 이정 및 그 문인들의 관점을 그대로 흡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를 포함한 송대 도학가들이 견지

22) 주희 『중용장구서』에 나타난 도통론의 철학 이론과 구조를 분석한 다른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한 자세한 분석을 생략하고 주희 도통 개념의 용법을 간단히 제시한 뒤 다음 절로 넘어가 주희가 계승한 도학적 도통 관념의 함의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23) 이 점에 근거하여 여영시 교수는 공자를 기점으로 공자 이전 시대를 도통의 시대, 공자 이후 시대를 도학의 시대로 구분한다. 余英時(2004), 『朱熹의歷史世界』, 15-17 쪽을 참조.

하였던 도학적 도통 관념의 주요한 특징을 드러낸다.

4. 도학적 도통 관념의 함의

지금까지 주희 이전 시대로부터 주희에 이르기까지 도통 개념의 용례를 살펴보았다. 필자는 그중 범성대의 용법과 『중용장구서』에서의 주희의 용법에서 도학적 도통 관념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필자가 말하는 도학적 도통 관념의 함의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단서는 정이가 정호를 위해 쓴 묘표에서 찾을 수 있다.

周公沒，聖人之道不行；孟軻死，聖人之學不傳。道不行，百世無善治；學不傳，千載無眞儒。無善治，士猶得以明夫善治之道，以淑諸人，以傳諸後；無眞儒，天下質實焉莫知所之，人欲肆而天理滅矣。先生生千四百年之後，得不傳之學於遺經，志將以斯道覺斯民。(주공이 죽자 성인의 도는 실행되지 않았다. 맹자가 죽자 성인의 학은 전해지지 않았다. 도가 실행되지 않으면 백세에 선한 다스림이 없게 되고 학문이 전하여지지 않으면 천대에 참된 유자가 없게 된다. 선한 다스림이 없으면 선비는 선한 다스림의 도를 얻어 다른 사람에게 사숙하고 후대에 전하며, 참된 유자가 없으면 천하에는 어지러이 그것을 아는 이가 없어 인욕이 성하고 천리가 멀하게 된다. 선생(정호)은 1400년 이후에 태어나 전해지지 않던 학을 경전에서 얻어 이 도로써 백성을 깨우치는 데 뜻을 두었다.)

도통 관념과 함께 언급되는 것이 유가적 도의 단절을 표현하는 절학(絶學) 의식과 도의 전승에 관한 담당(또는 주체) 의식이다. 정이는 주공 이래 성인의 도가 실행되지 않았고(聖人之道不行) 맹자 이래 성인의 학이 전승되지 않았다고(聖人之學不傳) 평가함으로써 맹자의 절학 의식을 계승하며, 나아가 정호가 그 학의 전승을 이었다고 평가함으로써 도의 전승을 향한 자기 형제의 담당 의식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정이가 “성인의 도”(聖人之道)와 “성인의 학”(聖

人之學)을 구분하여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첫째, 성인의 도와 성인의 학은 어떻게 다른가? 둘째, 이 둘은 독립된 계통을 가지는가? 주지하듯 주공이 계승한 성인의 도는 요순의 도, 즉 유가적 도(정치적으로는 王道)를 말하며, 맹자가 전한 성인의 학이란 공자의 학문, 즉 유가적 도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따라서 도학가들은 “성인지도”와 “성인지학”의 관계를 ‘도’(道, 즉 성인의 도)와 ‘도학’(道學, 즉 성인의 도에 관한 학문)의 관계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도의 계통과 도학의 계통은 독립적인가? 정이에 따르면 ‘그렇다’. 왜냐하면 위에서 정이는 도가 실행되지 않아 선한 정치가 부재한 상황이라도 선비는 그 도를 밝혀 후세에 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도가 실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도학은 전승될 수 있다. 도학가들에 따르면, 주공 이후 도가 실행되지 않자(道不行) 공자는 도학(道學)을 창설하여 그 도를 후세에 전했고, 훗날 맹자가 그 학문을 계승하였으며, 맹자 이후 도학은 단절되었다가(學不傳) 정호에 의해 다시 계승된다.

정이로부터 시작된 이와 같은 주장은 훗날 도학적 도통 관념이 정착되어 가는 이론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안상(劉安上, 1069~1128)은 『수선왕지왕』(守先王之道)에서 다음과 같이 논한다.

方周之衰，先王之道不行於天下而獨在於孟子，夫何也？雖一介之士而道實在焉，則當時推重無過於孟子矣！天下其敢不易禮而待之乎？嗚呼，道之不行也久矣！道不行則天下無善治，道之不明也久矣！道不明則千載無真儒，無善治，是先王之道不及於斯民矣，無真儒，是先王之道又不傳於學者矣，當孟子時，堯、舜、文、武之道不幸而不行於天下，幸而有孟子者，得先王之道而傳之²⁴⁾ (주나라가 쇠하자 선왕의 도가 세상에 실행되지 않고 오직 맹자에게 보존된 것은 왜인가? 비록 한 명의 선비이지만 도가 실제로 보존되었으니 당시 맹자보다 추존될만한 이가 없구나! 천하가 감히 차별

24) 劉安上, 『守先王之道』

이 없는 예로써 그를 대우할 수 있겠는가? 아, 도가 실행되지 않은 지 오래 되었구나! 도가 실행되지 않으면 천하에 선한 다스림이 없게 된다. 도가 밝혀지지 않은 지 오래되었구나! 도가 밝혀지지 않으면 참된 학자가 없게 된다. 선한 다스림이 없으면 선왕의 도는 백성에게 미치지 않고, 참된 학자가 없으면 선왕의 도는 학자들에게 전승되지 않는다. 맹자 당시 요, 순, 문, 무의 도는 불행히 천하에 실행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도 맹자가 선왕의 도를 얻어 그것을 전하였다.)

유안상의 기술은 전적으로 정이의 견해를 계승한 것이다. 유안상은 정이가 말한 ‘학이 전해지지 않음’(學不傳)이란 구절을 ‘도가 밝혀지지 않음’(道不明)으로 대체하였다. 사실 이 두 구절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도를 밝히는 일(明道)은 도의 학문적 실천을 말하기 때문이다. 정문 제자 범조우(范祖禹)는 『중용론』(中庸論)에서 다음과 같이 논한다.

聖人有其德，有其時、有其位而行其道，堯、舜、禹、湯、文、武、周公是也；有其德，無其時、無其位而言其道，孔子是也。²⁵⁾ (성인이 그 덕과 때와 지위를 얻으면 그 도를 행하니, 요, 순, 우, 탕, 문, 무, 주공이 그러하다. 덕이 있으나 때와 지위가 없으면 그 도를 설파하니, 공자가 그러하다.)

범조우는 성인의 두 가지 존재 양태에 대해 기술한다. 즉 성인이 덕성(德)과 때(時), 지위(位)를 겸비하였으면 천하에 도를 실행시키고(行道), 덕을 갖추었으나 시와 위를 겸비하지 못하였으면 도를 설파한다(言道). 여기에서 “도를 설파한다”(言道)는 것은 앞에서 말한 “도를 밝히는”(明道) 것과 의미상에서 같다. 따라서 시와 위는 성인의 필수조건이 될 수 없고, 덕이 그 필수조건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때(時)를 얻지 못한 공자를 도의 전수자로 보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된다. 남송 초기 활동한 도학가 담유인(譚惟寅)의 글에서 흡사한 내용이 보

25) 范祖禹, 『中庸論(三)』

인다.

聖人有德有位，其道行乎天下；聖人有德無位，其道明乎天下，功用皆同無二事也。(성인에게 덕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 그 도는 천하에 실행되고 성인에게 덕은 있으나 지위가 없으면 그 도는 천하에 밝혀지니, 그 공용은 둘 다 같다.)

담유인의 기술은 대체로 위에서 인용한 범조우의 주장과 같다. 행도와 명도 모두 성인의 일로서, 그 공용이 같다는 것은 도의 정치적 실현과 도의 학문적 실현이 가치상에서 차이가 없음을 뜻한다. 담유인의 언급 속에서도 성인의 속성 가운데 덕이 그 필수사항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정 문인 주광정(朱光庭)은 『명도선생론』(明道先生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道之不明不行也久矣. 自子思筆之於書，其後孟軻倡之，軻死而不得其傳. (….) 自孟軻以來，千有餘歲，先王大道，得先生而後傳，其補助天地之功可謂盛矣. 雖不得高位以澤天下，然而以斯道倡之於人，亦已較著.²⁶⁾ (도가 밝혀지지 않고 실행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자사가 『중용』을 집필한 이래 맹자가 그것을 주창하였고 맹자 사후 그 전승이 끊기었다. (….) 맹자 이래 천여 년이 지나 선왕의 큰 도는 명도선생을 얻어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으니 그 천지를 보좌한 공이 성대하다. 비록 높은 지위를 얻어 천하에 은택을 베풀지는 못했지만 사도를 후인들에게 주창한 것이 또한 분명하다.)

주광정은 이 글에서 도의 ‘실행되지 않음’(不行)과 ‘밝혀지지 않음’(不明)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논하고 있지만, 글의 증점은 명백히 후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광정은 또한 위 글에서 명도의 공이 강학, 즉 도의

26) 『二程河南程氏遺書』，附錄『門人朋友敘述』

학문적 실현에 있음을 강조하는데, 그 논지는 대체로 앞서 인용한 주희 『중용장구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²⁷⁾ 명도는 평생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지 못했지만 후인들에게 도학의 전승을 이었다는 공로로 이후 도학사에서 큰 위상을 차지하게 된다.

정자와 정문 제자들의 언급에 근거할 때, 도의 학문적 실현(明道)의 주체는 정권 소유의 여부를 떠나 성인의 학문을 후대에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에게 있다. 도학자들은 주공 이래 도가 실행되지 않았고(道不行) 맹자 이래 도가 밝혀지지 않았다(道不明)고 주장함으로써 주공 이후 도의 정치적 실현이 단절되었으며 맹자 이후 도의 학문적 실현이 단절되었음을 주장한다. 여기에서 행도와 명도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의 사용은 도가 실현되는 방식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도학자들은 공맹 이후 단절된 도의 학문(道學)이 정호에 의해 명도의 방식으로 계승되었고, 이로써 그동안 단절되었던 도의 학문적 실현이 송대에 이르러 현실화되었음을 주장한다.²⁸⁾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행도의 실현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학자들의 주장은 나아가 도가 실현되는 방식의 전환으로 인한 도의 전승 주체에 대한 변화를 암시하는데, 공자로부터 시작하여 도의 전승 주체는 더이상 제왕이 아닌 덕을 소유한 유자(또는 眞儒)에게 있게 된다. 공자 이후 성인의 학문(道學)이란 바로 이 명도의 주체들이 계승한 학문을 말하며 그들이 말하는 도통 역시 도학의 전승 계보를 의미하게 된다.

27) 주희의 『중용장구서』는 특별히 주광정이 쓴 이 글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하다.

28) 정호 사후 ‘明道’라는 존호가 붙여진 것에는 도통에 대한 당시 도학자들의 절실한 사명감이 반영되어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도통 개념의 출처를 밝히고 도학적 도통 관념의 함의에 대해 논하였다. 살펴보았듯이 도학적 도통 관념이 출현하기 전 도통 개념은 주로 치통, 정통 등의 함의에 해당되는 제왕의 계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도통 관념에 근거할 때 도의 전승 주체는 덕과 지위 모두를 겸비한 성왕에 한정되며 공자, 맹자 등의 유자(儒者)들은 자연히 그 계보에서 배제된다. 뿐만 아니라 도의 전승 방식 역시 성왕에 의한 왕도의 실현, 즉 도의 정치적 실현에 있게 되며 도의 학문적 전승의 위상은 그다지 부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이후 도학적 도통 관념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도학적 도통 관념에 이르러 도통의 계보는 더이상 성왕의 계보에 머물지 않는다. 도학자들은 공자 이전의 도(道)의 계보를 공자 이후의 학(學)의 계보와 연결시켜 도통의 계보는 더이상 제왕의 계보가 아닌 도학의 계보가 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그들에게 있어 도는 도학(道學)의 형식으로 전달되며 이 도를 밝히는(明道) 주체로서 도학자들은 요순의 도와 공맹의 학을 후세에 전달하는 사명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듯 도의 전승에 대한 도학자들의 주체의식은 행도(行道)의 주체인 황제(王者)의 위상, 즉 황권에 맞서는 신권의 신장을 장려하고 있다는 면에서 도학 정치의 중요한 한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⁹⁾

끝으로 필자는 이정의 계승자들로 구성된 도학자들의 도통 관념에 근거하여 도학적 도통 관념과 한유 및 손복, 석개, 호원 등 존한(尊韓)파들의 도통 관념은 서로 구분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싶다. 기존 연구들은 도통 관념의 벽이단적 요소³⁰⁾ 및 유학 내부의 파벌주의적 성격 등에 근거

29) 사실 도학 정치의 전범은 맹자의 왕도(王道) 사상 및 군사(君師) 관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점은 도학적 도통 관념의 흥기가 당시 존맹(尊孟) 사조로 대표되는 유학 부흥 운동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여 한유로부터 존한파, 그리고 도학가들의 도통 관념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여 왔지만, 이러한 관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도의 전승 내용에 대한 도학가들의 주장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추후 별도의 논문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
- 30) 도통 관념의 벽이단적 요소와 관련하여 송대 도통 관념의 출현은 불교의 법통(法統) 설과의 긴장 관계로 탄생하였다는 주장이 개진되어 왔다.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陳寅恪 등을 들 수 있다. 진선생은 한유의 도통론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이 설에 근거하여 도통설과 법통설의 연관성을 지적해왔다. (陳寅恪, 「論韓愈」, 『金明館叢稿初編』, 320쪽을 참조.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黃雲眉, 「讀陳寅恪先生論韓愈」를 참조) 하지만 이들 주장에서 도학의 도통설과 불교의 법통설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헌학적 논거가 제시된 적은 없다. 이 주장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헌학적 근거의 제시 내지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의 문화사상교류사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별도의 논문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二 程, 『二程集』, 中華書局.
- 楊 時, 『龜山集』, 四庫全書電子版.
- 范祖禹, 『帝學』, 四庫全書電子版.
- 劉安上, 『給事集』, 四庫全書電子版.
- 朱 熹, 『朱子全書』,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 李若水, 『忠愍集』, 四庫全書電子版.
- 劉才邵, 『檄溪居士集』, 四庫全書電子版.
- 李流謙, 『澹齋集』, 四庫全書電子版.
- 范祖禹, 『中庸論』, 四庫全書電子版.
- 周必大, 『文忠集』, 四庫全書電子版.
- 張 栻, 『張栻全集』, 長春: 長春出版社.
- 呂祖謙, 『東萊集』, 四庫全書電子版.
- 陳榮捷(民國71), 『朱學論集』, 臺灣學生書局.
- 陳寅恪(1980), 『金明館叢稿初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余英時(2004), 『朱熹的歷史世界』, 三聯書店.
- 毛漢光(1984), 『唐代墓誌銘彙編附考』, 台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 葉國良(1999), 『石學續探』, 臺北: 大安出版社.
- 楊柱才(2004), 『道學宗主』, 北京: 人民出版社.
- 鄧廣銘(1997), 『鄧廣銘治史叢稿』,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土田健次郎(2010), 『道學之形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田 浩(Hoyt C Tillman)(2002), 『朱熹的思維世界』, 西安: 陝西師範大學出版社.
- 陳植鏗(1994), 「周程授受辨」, 『文獻』.
- 黃雲眉(1955), 「讀陳寅恪先生論韓愈」, 『文史哲』.
- 葉國良(1995), 「唐代墓誌考釋八則」, 『臺大中文學報』.
- 蘇費翔(Christian Soffel)(2010), 「朱熹之前的道統論」, 『朱子學國際學術研討會』.

王立新(1999), 「周敦頤思想史地位之確立」, 『朱子學刊』.

李 峻(2006), 「『中庸章句序』中的“道統”與“道學」, 『學圓』.

임명희(2009), 「도의 전승에 관한 송대 도학가들의 신념과 도통관념」, 『동아연구』 제57집.

원고 접수일: 2012년 10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2년 11월 28일

게재 확정일: 2012년 12월 4일

中文摘要

‘道統’概念的出現與道學家道統觀念的含義

林明熙

本論文的目的是為探討道統概念的用法以及道學家有關道統觀念的含義。首先，筆者提供朱熹以前出現的道統概念的幾個用例，並提出道學家特有道統觀念的第一次用例。其次，考察朱熹在『中庸章句序』裡使用道統概念的含義，並與同時人的其他用法進行比較。最後，提出二程以及程門弟子所建立的道統觀念的主要意義，以論證朱熹所繼承並發展的道學家特色的道統觀念的思想前提。